

웹툰 조각투자 플랫폼 : STO 기반 증권형상품 제안

내가 만든 쿠키팀

추상훈
이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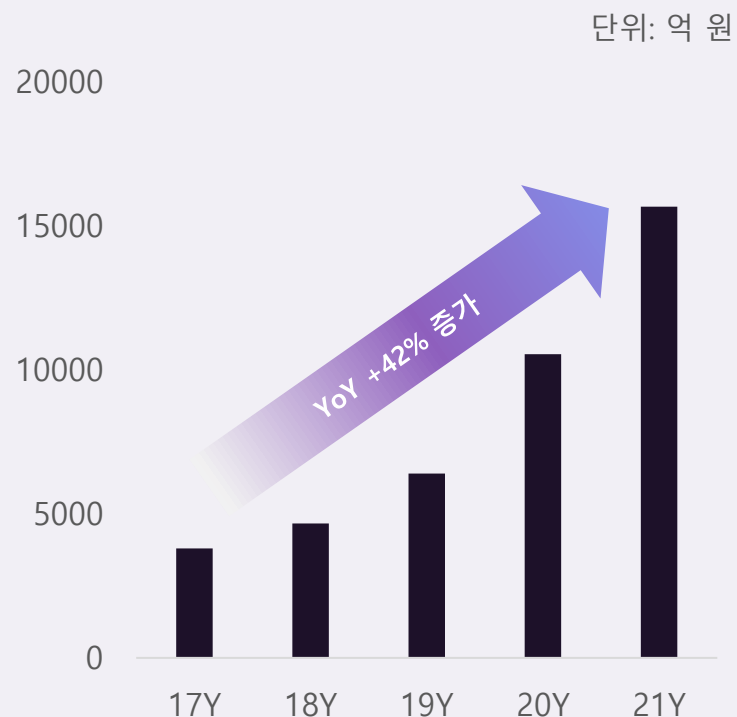
CONTENTS

- 서론
- 본론
- 결론

| 서론: 웹툰 산업 OVERVIEW


-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17년 3800억원에서 21년 1조 5천억 규모로 **YoY +42%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
- 웹툰의 발전 단계 1단계는 만화책을 스캔하여 디지털화 하는 방식이며 스크롤을 통해 내리면서 읽는 것이 기본 형태임.
- 2단계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플랫폼의 등장**과 호랑 작가의 봉천동 귀신 등에 쓰이는 **특수효과 첨가**가 특징임.
- 3단계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웹툰 뷰어**가 대중화되었으며 **전문 유료 플랫폼**이 등장함.

| 웹툰 시장 규모 추이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가만든쿠키

| 웹툰 발전 단계(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롤 기반의 작품• 강풀의 순정만화가 대표•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등장함• 호랑의 봉천동 귀신과 같은 특수 효과 첨가 작품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진코믹스와 같은 전문 유료 플랫폼의 등장• 다양한 수익구조의 등장

출처: 산업종합, 내가만든쿠키

| 서론: 웹툰 IP 확장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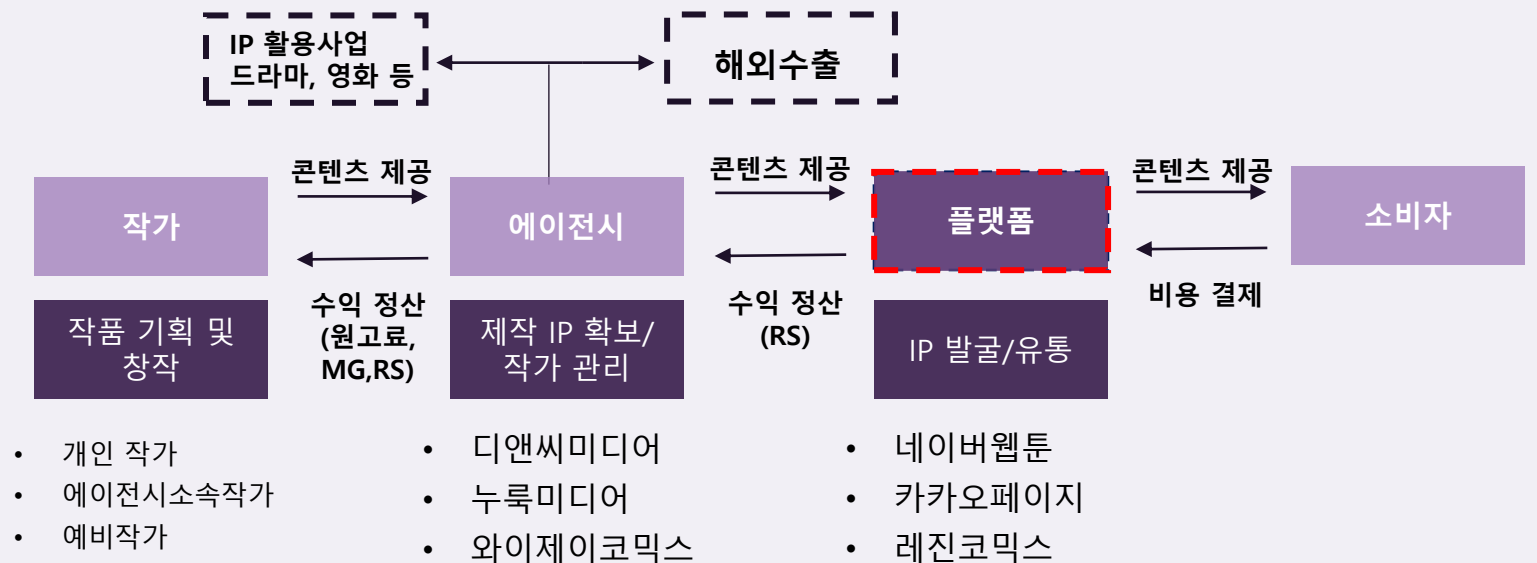
- 웹툰 IP는 웹툰을 뛰어넘어 **영화/드라마** 등으로 확장되며 IP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22Y 기준 **25개의 네이버웹툰**과 **8개의 카카오웹툰**이 영상화 되었으며 대다수의 작품이 **흥행에 성공함**.
- 23Y에 역시 많은 수의 작품이 영상화 될 예정이며 이는 **잘나가는 영화/드라마의 성공 공식 중 하나로 자리잡음**.
- 웹툰 산업의 벨류체인은 **작가와 에이전시, 플랫폼, 소비자**가 구성하고 있음.

| 웹툰 IP 영상화 현황

네이버웹툰	브랜드명	카카오웹툰
 25개 18개	22Y IP 영상화 건수 23Y IP 영상화 건수	8개  8개
• 지금 우리 학교는 • 여신강림 • 유미의 세포들 등	대표 웹툰 IP	• 이태원 클라쓰 • 술꾼도시처녀들 • 경이로운 소문 등
		

출처: 산업종합, 내가만든쿠키

| 웹툰 산업 벨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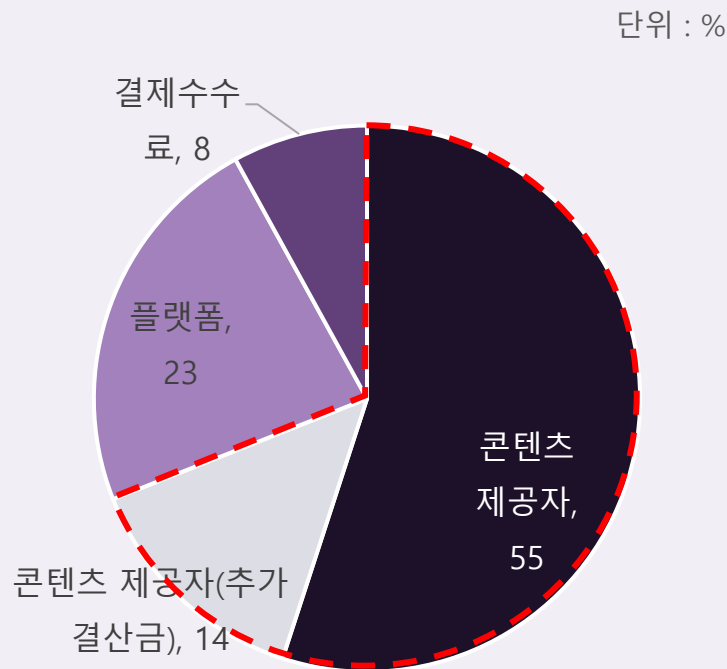


출처: 산업종합, 내가만든쿠키

본론: 웹툰 매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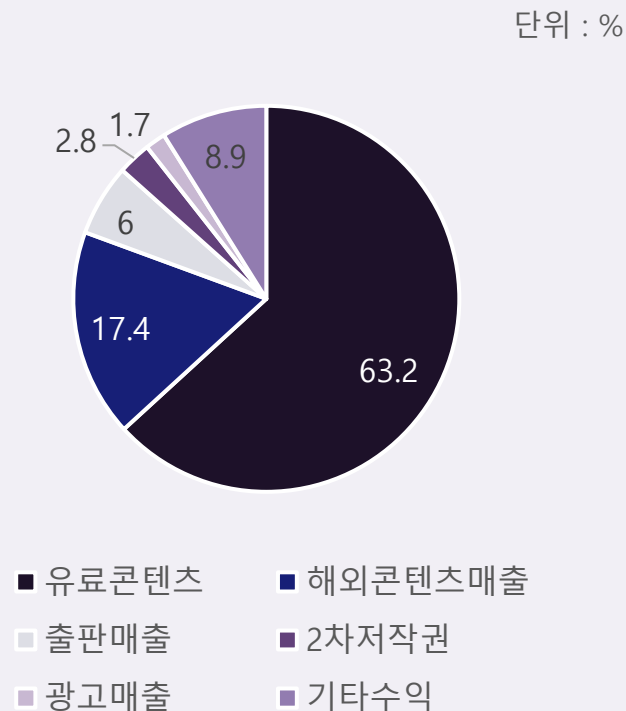
- 대형 플랫폼 웹툰의 경우 작가가 70%의 수익을 얻고 플랫폼이 23%, 결제수수료가 8% 정도 차지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1Y 웹툰 매출 구분 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료콘텐츠가 6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해외 콘텐츠 매출 17.4%, 출판 매출 6.0%, 2차 저작권 2.8%, 광고매출 1.7%로 구성되어 있음.
- 2차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작가와 직접 계약이 61.2%, IP 보유 플랫폼과 계약이 29.1%로 대다수를 차지함.

카카오 웹툰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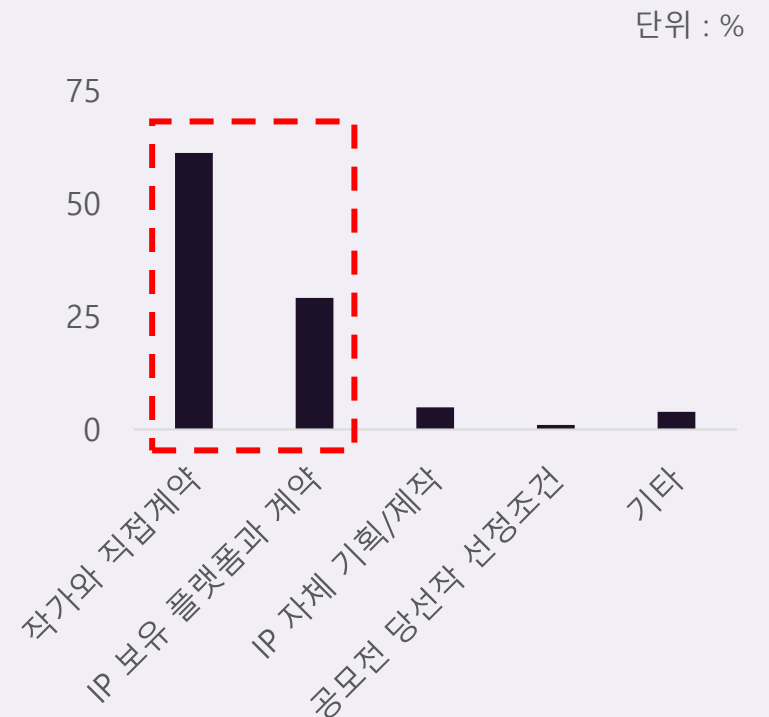
출처: 언론종합, 내가만든쿠키

웹툰 매출 구분 별 비중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가만든쿠키

2차 저작권 확보 방법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가만든쿠키

서론: 우리가 좋아하는 웹툰에 투자한다면?

- 현재 웹툰 이용자의 약 50%가 웹툰을 유료로 이용하기 위해 결제한 경험이 있으며 유료 결제자의 65%는 매월 2~3회 이상 유료 결제를 진행함.
- 월 평균 사용하는 금액의 중간값은 11,100원으로 성별과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 사업체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성 강조.
- 웹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 우리가 좋아하는 웹툰에 투자하여 수익구조를 나누어 가지고, 흥행에 성공하여 영화화 등이 된다면 더 큰 부가가치 창출 가능.
- 웹툰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늘리고, 웹툰 IP 생태계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음.

웹툰 유료 결제 경험

단위 :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49.1	50.9
성별	남성	49.8	50.2
	여성	48.4	51.6
연령	20대	57.1	42.9
	30대	49.9	50.1
	40대	46.3	53.7
	50대	29.6	70.4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가만든쿠키

웹툰 유료 결제 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일주일 에 3~4 번	일주일 에 1~2 번	1개월 에 2~3 번	2~3개 월에 1번	그 이 상
전체		6.7	9.4	21	31.6	19.1	12.2
성 별	남성	6.5	10.2	21.1	34.6	18.3	9.3
	여성	6.9	8.6	20.8	28.6	20.0	15.1
연 령	20대	6.9	13.9	16.8	32.7	14.9	14.9
	30대	8.0	10.6	20.2	31.9	19.1	10.1
	40대	5.7	6.2	24.2	29.9	20.6	13.4
	50대	0	0	12.5	50.0	37.5	0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가만든쿠키

월 평균 유로 결제 금액

단위 : 천 원

구분		천 원 이하	5천 원 이하	1만 원 이하	2만 원 이하	2만 원 초과	평균
전체		11.0	38.7	24.0	13.6	12.6	11.1
성별	남성	11.0	34.1	25.2	17.1	12.6	11.4
	여성	11.0	43.3	22.9	10.2	12.7	10.7
연령	20대	13.9	40.6	19.8	12.9	12.9	10.3
	30대	13.3	42.0	25.0	8.5	11.2	9.6
	40대	7.7	34.5	24.2	19.6	13.9	12.9
	50대	0.0	37.5	50.0	0.0	12.5	10.2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가만든쿠키



CONTENTS

- 서론
- **본론**
- 결론

본론: STO란 무엇인가

-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줄임말로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여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
- 토큰은 지불형, 증권형,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나뉘며 지불형 토큰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암호화 화폐에 해당.
- 증권형 토큰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하여 소유하는 개념.

IPO와 STO의 차이점

	IPO	STO
대상물	실제 비즈니스 모델 (실적, 자금흐름 등)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실물 자산
투자 자금 형태	법정통화	법정통화 및 가상 자산
런칭 프로세스	2,000	20,000
발행인	명확	명확
비용	높음	보통
권리	기업의 수익 지분 소유	연동 자산의 지분 및 수익 소유
법적 규제	적용	적용

출처: 언론종합, 내가만든쿠키

토큰의 종류

분류	주요내용
지불형 토큰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됨.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요구, 증권 으로 취급되지 않음
유틸리티 토큰	블록체인 기반 비금융목적 가상화폐 이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해당 .

출처: 언론종합, 내가만든쿠키

증권형 토큰 실물자산 종류



| 본론: STO의 현재 위상

- 금융 당국은 이번 달 5일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STO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기존에는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여부에 주목하였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특정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음**.
- STO는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반대급부로 여러가지 위험요인 또한 존재함**.

| STO 법 개정 타임라인

일자	국내 이벤트
22.04	뮤직카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분류
22.09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정비 방향 제시
22.09	루나 증권성 여부 검찰 조사
22.11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분류
23.02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23년 하반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 개정 예정

출처: 언론종합, 내가만든쿠키

| STO의 장점과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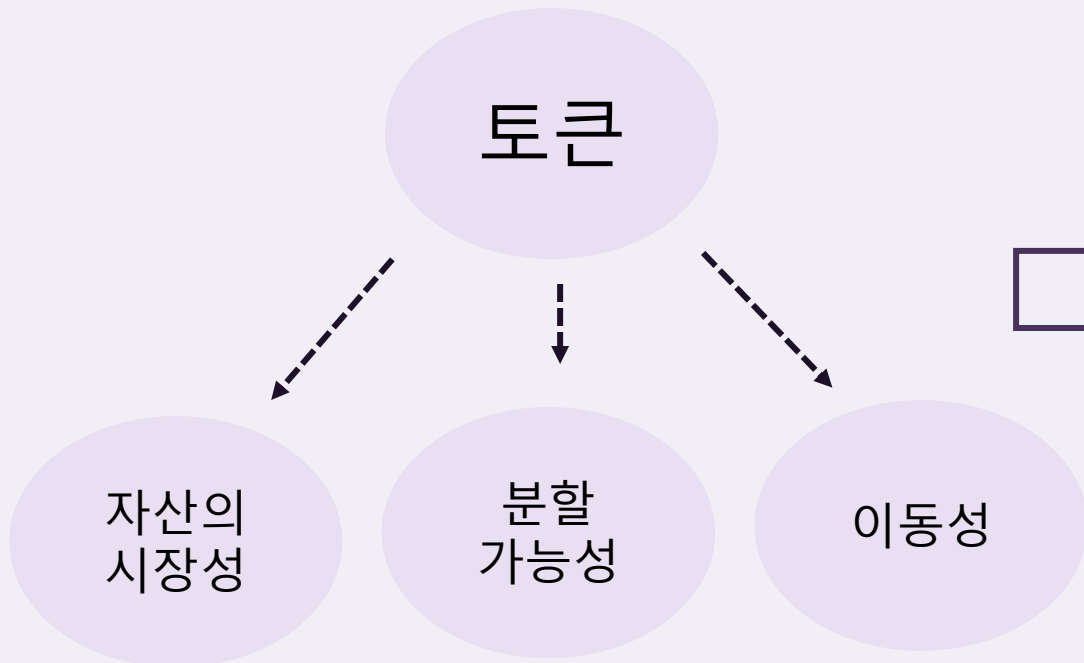
장점	위험
투명성, 추적성, 불변성	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력 부족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지연 가능성
탈중개인화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
중소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효율성	탈중개인화로 인한 책임성 및 신뢰성 부족
새로운 혁신기술과의 통합 용이성	이용자 경험 미비와 인터페이스 문제
투자자 기반의 글로벌화	간편구매와 예치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실시간 시장거래 및 실시간총액결제	규제 불확실성과 사업금지 가능성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내가만든쿠키

본론: STO의 향후 전망

- STO 자체가 매력적인 상품인 것은 확실하나 향후 1~2년간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 대표적인 이유는 **발행 규모 자체가 작고**, 금융 당국의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량의 큰 폭의 증가가 어려움**.
- 하지만 상품당 1개의 증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기에 STO의 매력도에 따라 **각 증권사의 MTS의 MAU가 증가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음**.
- 또한 규제 완화 및 투자자의 관심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성 또한 개선 가능할 것이라 기대함**.

STO의 장점



출처: CryptoTEO, 내가만든쿠키

STO의 혁신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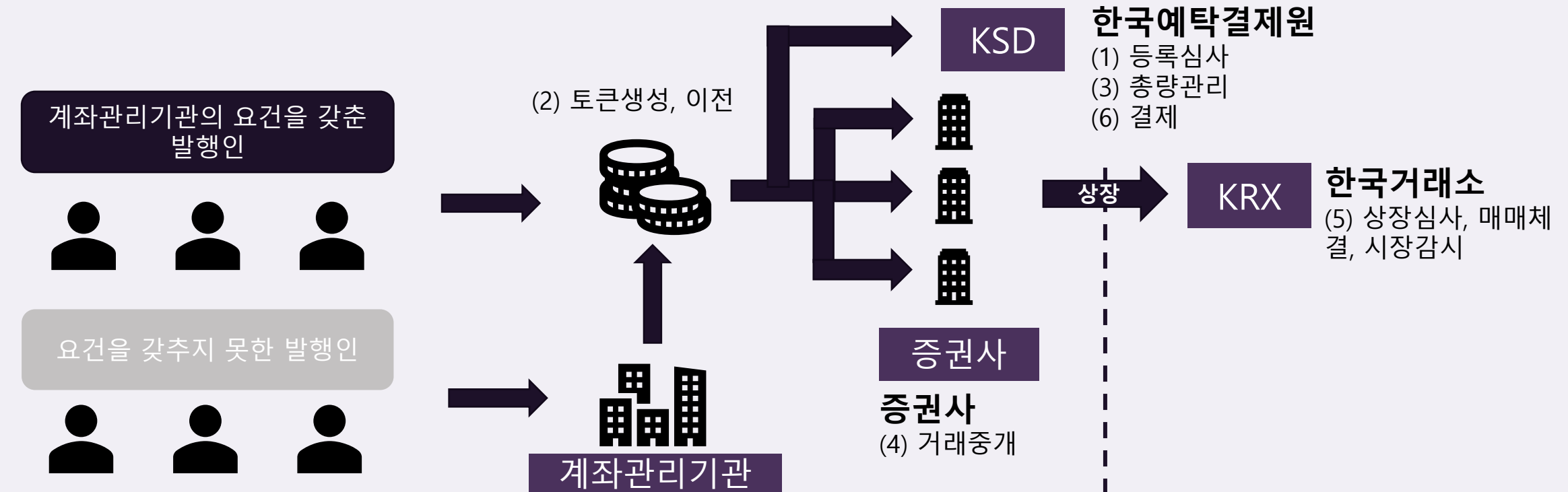
장점	위험
금융상품의 혁신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상품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음
증권발행의 혁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타겟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EX) 특정 아이돌 그룹에만 투자, 특정 프로젝트 토큰화 등등
자산유동화의 혁신	기관 고객만 접근 가능했던 자산에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음.

출처: CryptoTEO, 내가만든쿠키

본론: STO 벨류체인

- STO 벨류체인은 발행과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의 경우 직접 토큰을 생성하고 이전할 수 있으며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경우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토큰 생성 및 이전이 가능함.
- 발행과정은 (1)예탁원 등록심사 -> (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토큰 생성 및 이전 -> (3)예탁원 총량관리로 이루어짐.
- 유통과정은 장외시장의 경우 (4)증권사 중개로 진행되고 장내시장의 경우 (5)KRX 디지털 증권시장 또는 (6)예탁원 결제로 이루어짐.

STO의 벨류체인



| 본문: 해외 STO

- STO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결과가 증권형토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SEC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증권형 토큰은 지금보다 엄격한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됨.
- 반대로 리플이 승소할 경우 글로벌 증권형 토큰 전반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음.

SEC·리플 소송 타임라인		소송 결과에 따른 여파	
일자	SEC·리플 소송 타임라인	SEC 승리시	리플 승리시
20.12.22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 제기	다양한 코인의 증권형 토큰 편입 여부를 두고 논쟁 발생. 상당수 토큰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디지털증권시장으로 이관될 수 있음.	가상자산이 증권법 규제에서 한층 더 자유로워짐. 국내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역시 큰 영향을 미침.
21.01.30	리플랩스 'XRP가 증권'이라는 것에 정면 반박		
21.03.05	리플랩스 자료 제출 '거래소들이 XRP 상장 전 SEC와 상의를 거쳤음'		
22.09.18	SEC와 리플이 법원에 약식 판결 요청		
22.10.11	법원, 리플의 제3자 의견 제출 요청 승인		
23년 3월 중	약식판결 결과 발표 예정		

본론: 국내 S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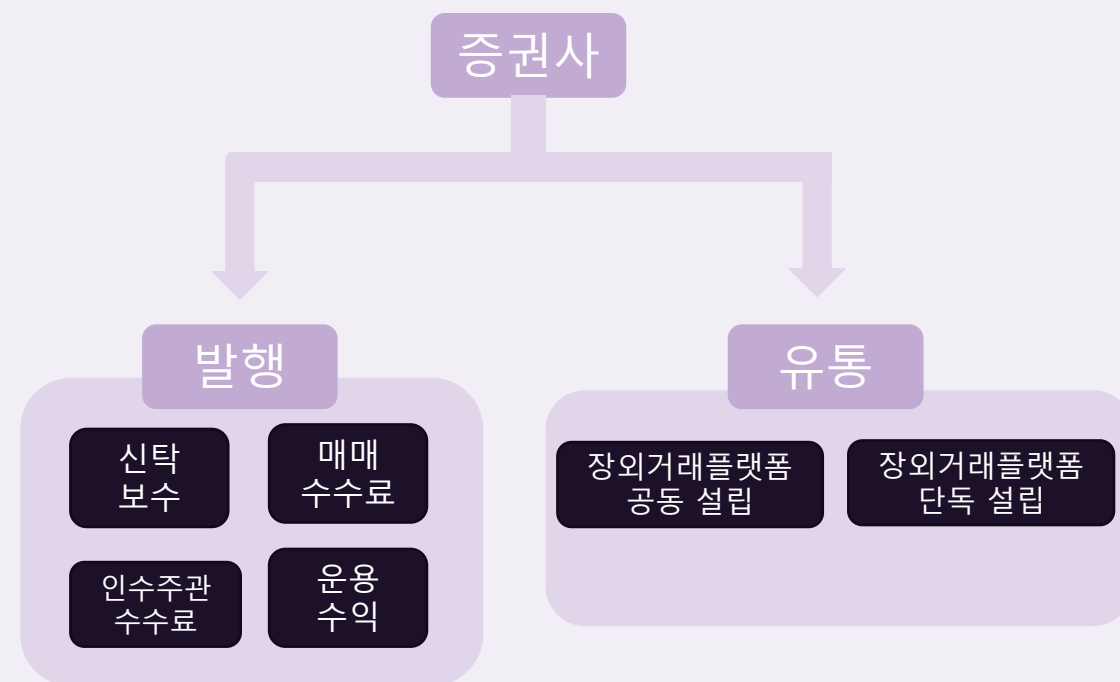
- 증권사는 2월 6일 STO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24년 STO 시장 선점을 위해 STO 플랫폼 개발 및 조각 투자 플랫폼과의 협업에 나서고 있음.
- 음악 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지분 형태로 나눈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증권사로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된 것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
- 키움증권, 대신투자증권, SK증권, KB증권 등 많은 증권사들이 투자 및 협업의 형태로 STO 시장 선점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

국내 주요 증권사 STO 진출 준비 현황

증권사명	협업 대상	플랫폼	내용
키움증권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투자 및 협업
	비브릭	부동산	협업
	펀드블록글로벌	부동산	협업
	테사	미술품	협업
	이랜드넥스	미술품	협업
대신투자증권	카사코리아	부동산	인수 추진중
SK증권	편블	부동산	투자 및 협업
	열매컴퍼니	미술품	투자 및 협업
	자체플랫폼	STO	인피닛블록과 협업
KB증권	자체플랫폼	STO	SK C&C와 협업
신한투자증권	자체플랫폼	STO	람다256과 협업

출처: 각 사, 내가만든쿠키

증권사의 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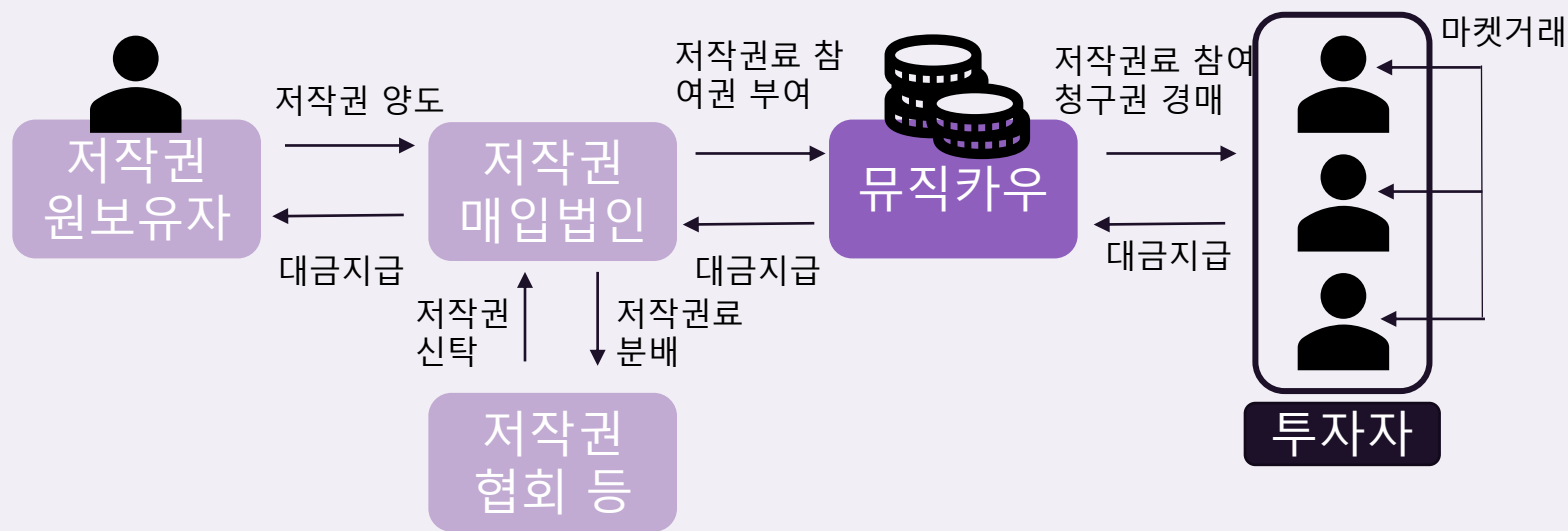


출처: 각 사, 내가만든쿠키

본론: 음원 STO사례를 살펴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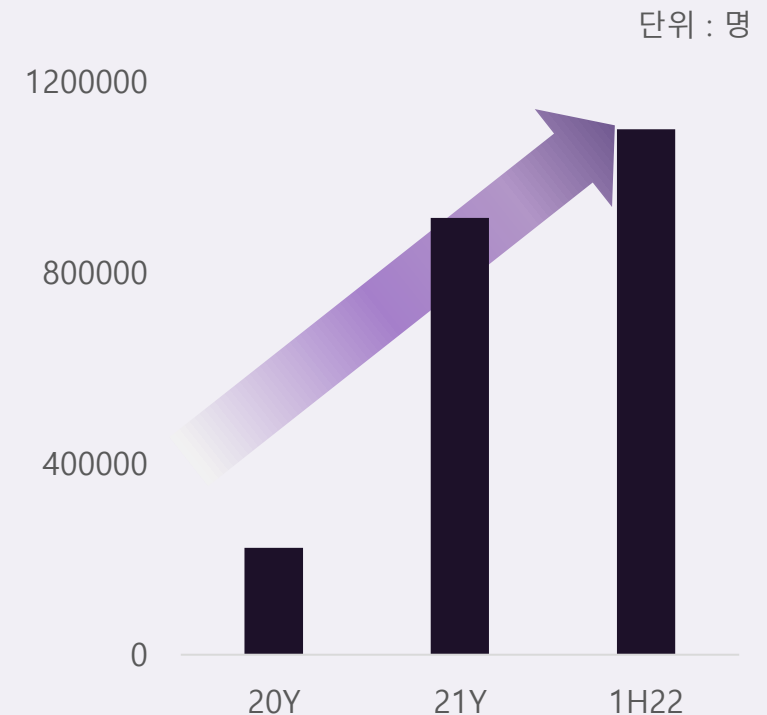
- 첫 번째로,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살펴보면, **옥션 비즈니스 형식**을 가지고 있음.
- 저작권 원작자로부터 과거의 저작권료 데이터를 확보 후, **추정된 미래 저작권료를 할인**하여 저작권 매입 후 분할하여 판매함.
- 옥션을 통해 판매된 **음악 저작권의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50%는 저작권 원작자에게 배분**하고 **비용으로 인식**.
- 저작권 분할 판매의 경우 상위 입찰자부터 수량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낙찰 여부가 결정되며, 동가격의 경우 선착순으로 정함.
- 뮤직카우의 거래금액은 21년 기준 2,745억원으로 **YoY +712.1% 증가**하였으며, 회원수는 915,434명으로 **YoY + 301.1% 증가**함.

뮤직카우 BM



출처: 뮤직카우, 내가만든쿠키

뮤직카우 회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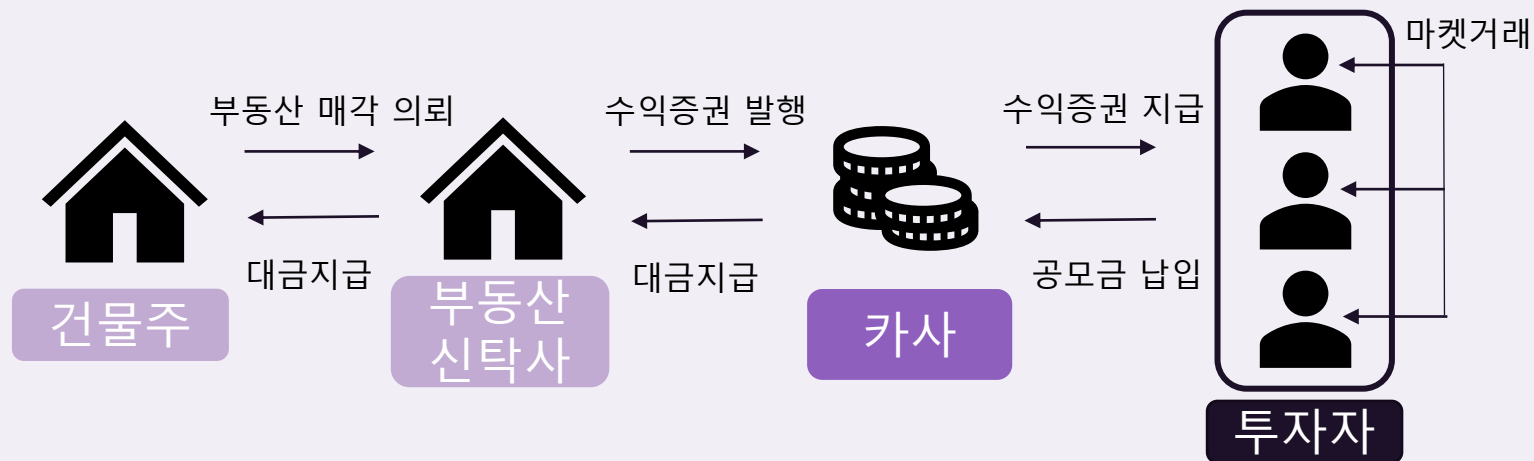


출처 : 뮤직카우, 내가만든쿠키

본론: 부동산 STO사례를 살펴보며

- 두 번째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상업용 부동산 조각투자 전용 플랫폼**임.
-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한 뒤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주식처럼 사고 팔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공모 시 수수료 1%, 거래 시 수수료 0.2%, 임대료 2%, 매각 대금 7%의 수수료가 존재함.
- 뮤직카우와 다른 점은 공모가를 정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건물의 가치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낮음**.

카사 BM



출처: 카사, 내가만든쿠키

카사 조각투자 현황

건물	공모 시점	완판 시간	공모총액 (원)	공모참여자 (명)
역삼 런던빌	20.11	8일	101억	7091
서초 지웰타워	21.07	2시간 30분	40억	3021
역삼 한국기술센 터	21.09	1일	84억	2625
여의도 익스콘벤처 타워	22.03	14분	16억 4000만	1534
부티크호텔 르릿	22.04	5분 16초	22억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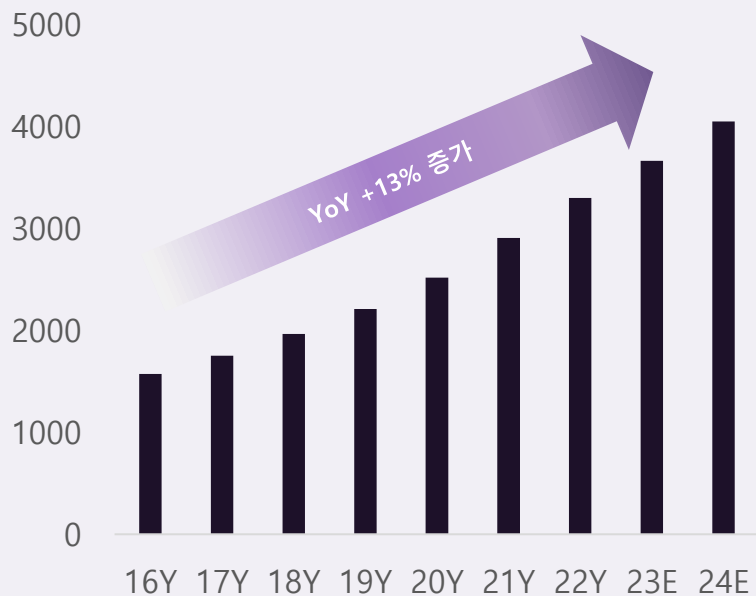
출처 : 카사, 내가만든쿠키

본론: 웹툰 STO는?

-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상품 및 플랫폼 중 아직 제도권 내에 자리잡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함.
- 본 팀은 이제 막 조각투자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 IP가 매력적인 조각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 이유는 첫째, IP자체의 매력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드라마화/영화화 등으로 2차 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
- 둘째, IP 흥행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웹툰/영화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세계 디지털 콘텐츠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내가만든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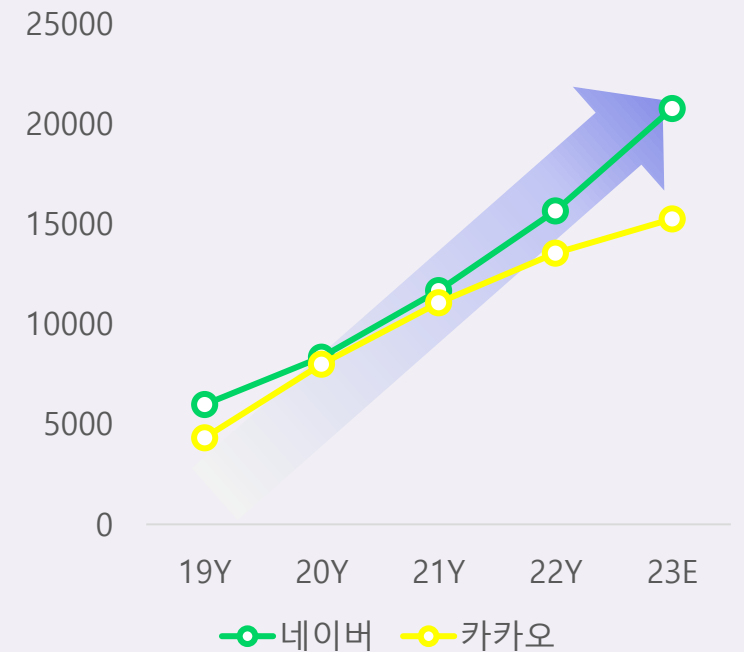
국가별 디지털 만화 앱 순위

국가	순위	앱 이름(회사)
미국 	1위	웹툰(네이버)
	2위	태피툰(콘텐츠퍼스트)
	3위	타파스(카카오)
일본 	1위	픽코마(카카오)
	2위	라인망가(네이버)
	3위	슈에이샤(슈에이샤)

출처 : 각사, 내가만든쿠키

네이버 및 카카오 웹툰 거래액 전망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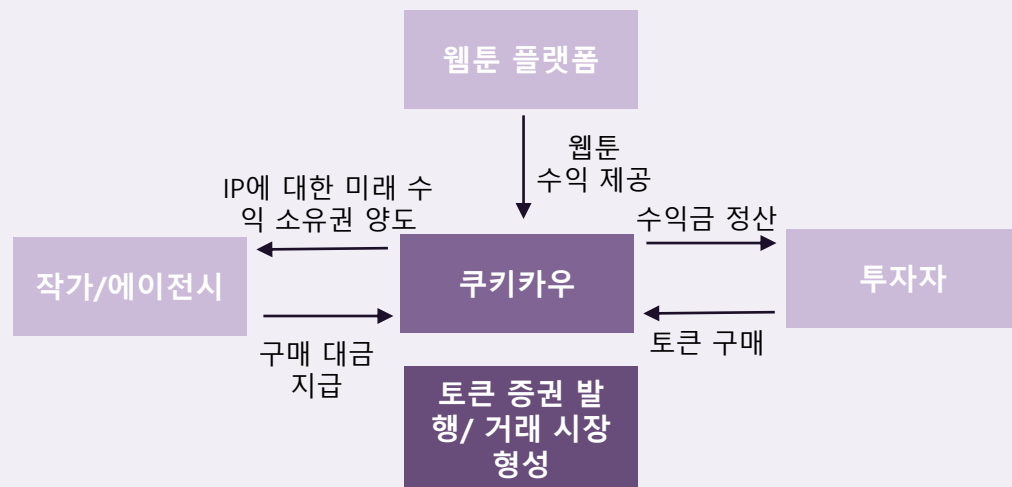
출처 : 언론종합, 내가만든쿠키

본론: 쿠키카우를 제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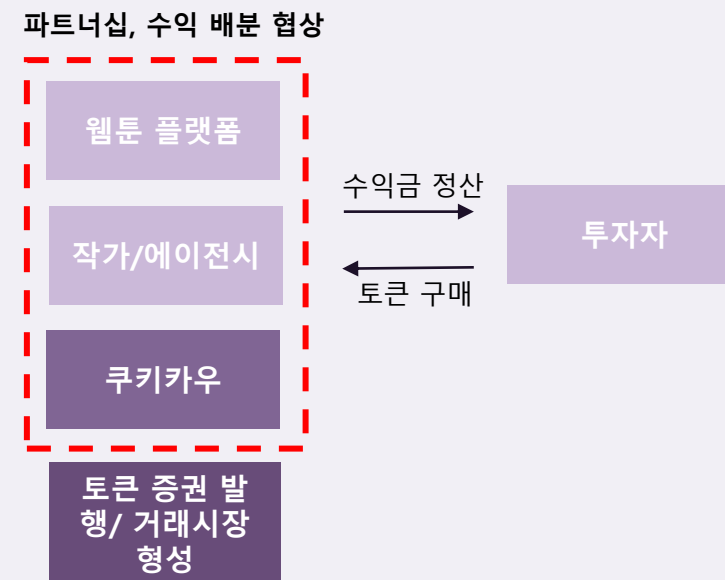
- 웹툰의 IP에 대한 **STO 기반 증권형 상품 거래 플랫폼(예명: 쿠키카우)**을 제안하고자 한다.
- 웹툰 IP의 미래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작가 및 웹툰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토큰 증권** 생성.
- 대중들에게 **공모**를 통해 **초기 가격을 결정**
- 이후 토큰 증권 **시장 형성**을 통해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

쿠키카우 BM

1) IP 100% 구매 형식



2) IP 수익 배분 형식



본론: 웹툰STO 가능한가?

- 최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토큰 증권을 제도 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보임.
- 본 팀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특정 토큰에 대한 증권여부 판단 기준 3가지를 제시함.
- 현재 뮤직카우, 카사 등 특정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함.
- 쿠키카우 역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뮤직카우, 카사 등 조각투자 플랫폼처럼 증권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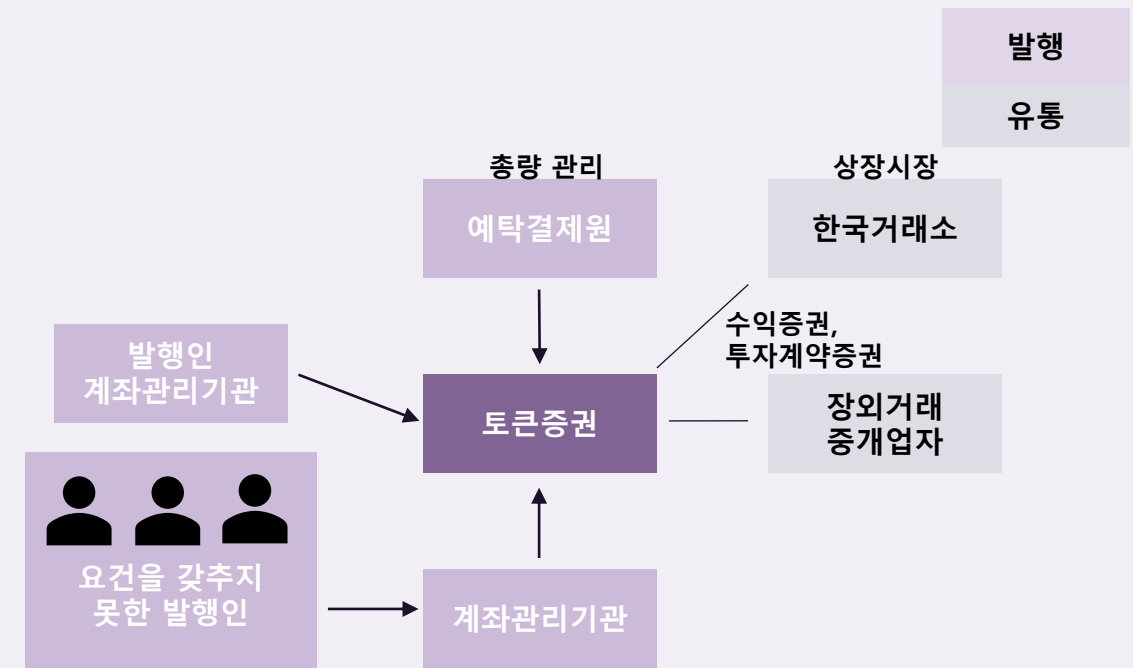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증권상품으로 인정 가능성 높은 예시

1.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3.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금융위, 내가만든쿠키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유통체계 정비 방안



출처: 금융위, 내가만든쿠키

본론: IP 미래가치 산정

- 일정한 수익이 나는 완결 웹툰의 경우 IP의 수익 소유권에 대한 대금 산정 후 작가에게 지급, 소유권 구매.
- 미래 가치는 과거 IP 기반 수익 데이터를 기반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 model 사용 산정.
- 가치 산정 시 기대 수익 창출 기간, 수익 성장률, 과거 평균 수익, 할인율, 리스크 프리미엄 고려.
- 현재 연재중인 웹툰의 경우 다양한 경로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고려해 미래가치 산정.

완결 작품에 대한 미래가치 산정 공식

$$FV = \frac{AAR * (1 + g - d - r)^L}{(1 + d)^L}$$

FV: 미래 가치

AAR: 연 평균 수익

g: 기대 성장률

d: 할인율

r: 리스크 프리미엄 $r = \beta(E(M) - R_f)$

L: 기대 수익 창출 기간

연재중인 작품에 대한 미래가치 산정 공식

$$FV = PV_1(1 + g_1)^{n_1} + PV_2(1 + g_2)^{n_2} + \dots + PV_n(1 + g_n)^{n_n}$$

FV: 미래 가치

1~n: 각 수입원

PV: 현재 가치(과거 수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대 수익 계산, 할인율로 할인. 과거 수입이 없을 시 시장조사를 통해 예상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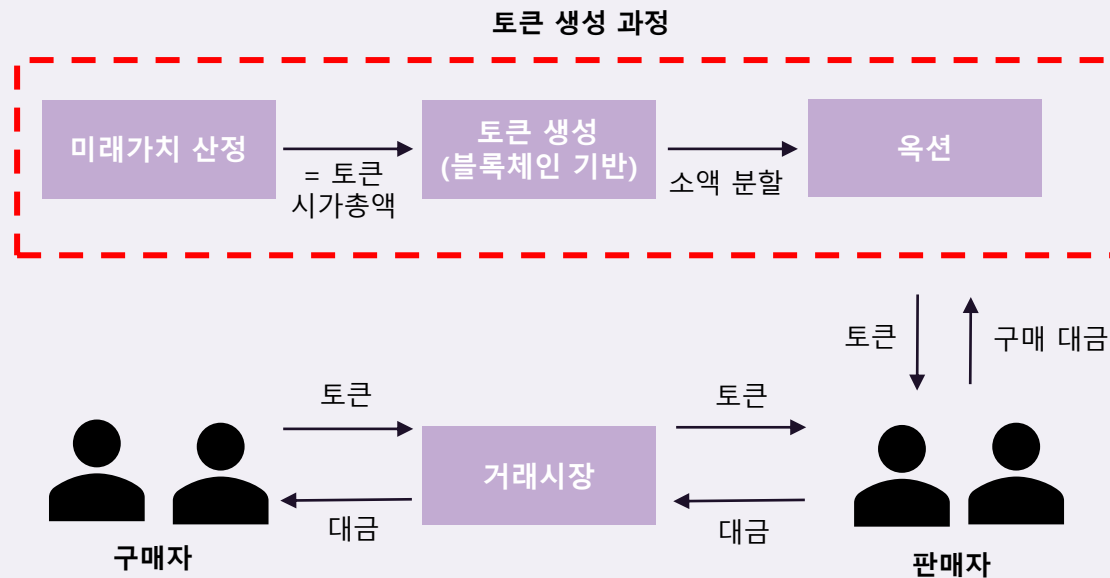
g: 각 수입원에 대한 기대 성장률

n: 각 수입원에 대한 기대 수익 창출 기간

본론: 토큰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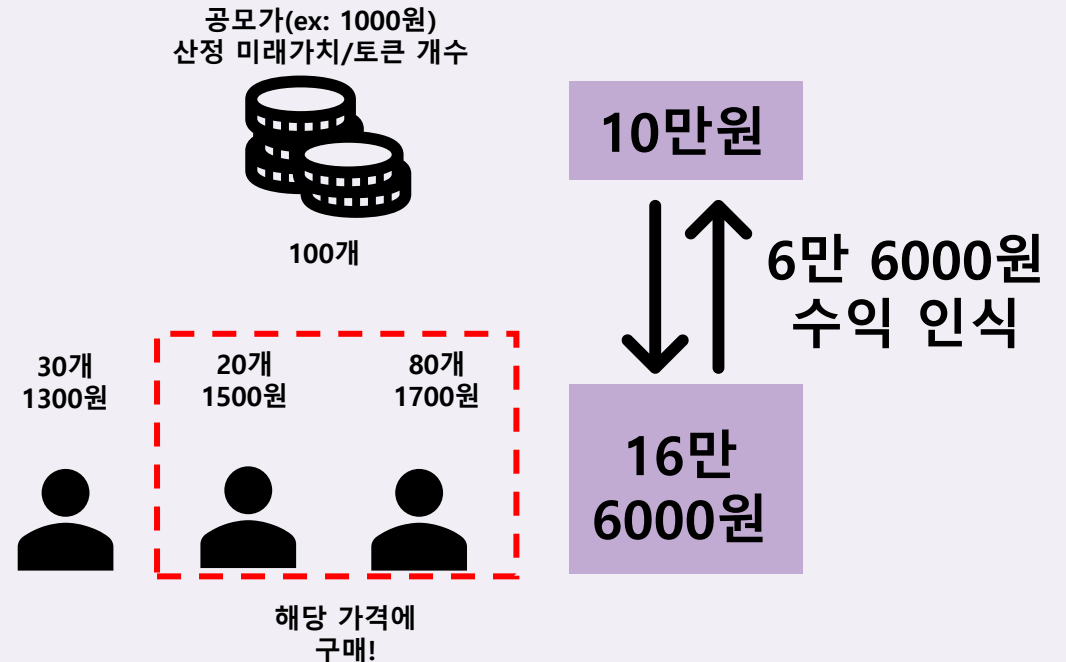
- IP 구매에 지급한 대금/ IP의 산정한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토큰의 기본 시가 총액과 개수 결정.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을 생성하며 이는 기술력을 담보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함.
- 투자자들에게 옥션 형식으로 STO를 판매함.
- 옥션을 통한 토큰 판매 대금과 구매대금/산정 미래가치의 차익이 수익으로 책정.

토큰 생성 및 거래 과정



출처: 내가만든쿠키

옥션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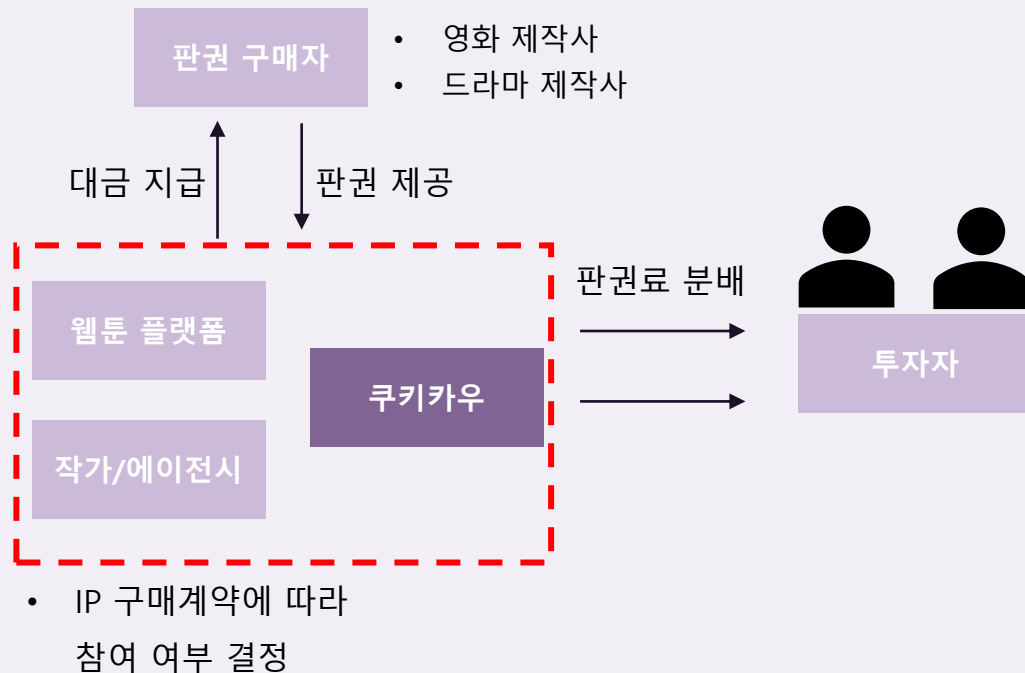


출처: 내가만든쿠키

| 본론: 2차 저작권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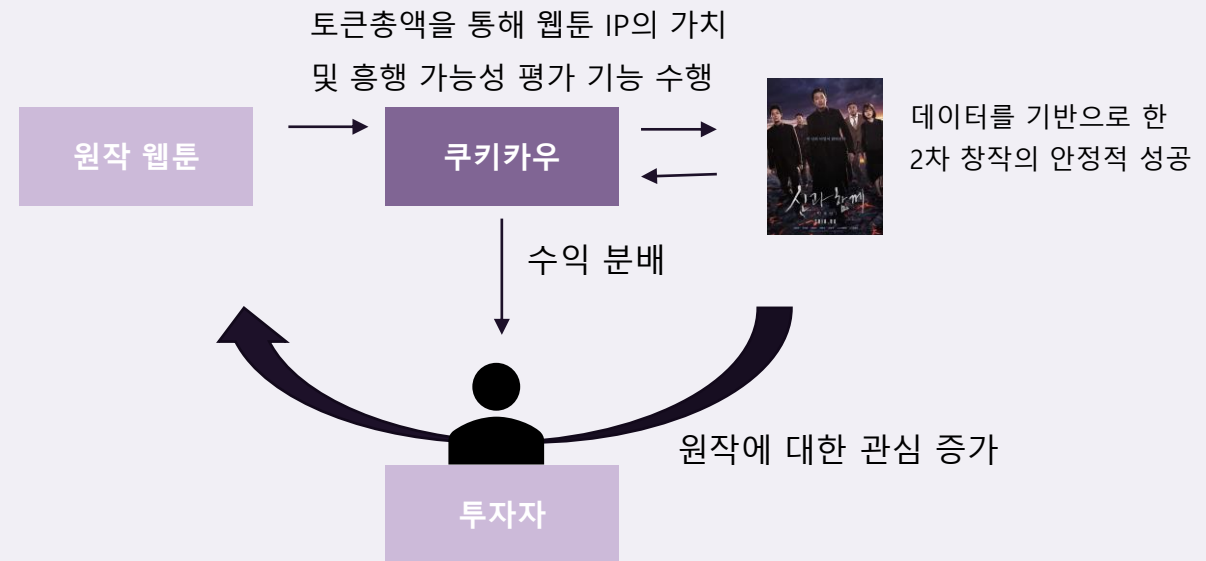
- 영화/드라마와 같이 IP를 이용한 2차 창작 시 토큰 총액이 가치 산정의 기준이 됨.
- 쿠키카우가 산정한 2차 저작권 수익 가치는 영화사/제작사가 IP를 평가할 때 신용 및 흥행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작가/플랫폼/쿠키카우/IP 구매자 간 협상을 통해 판권 산정, 쿠키카우의 판권료를 투자자들에게 분배**
- 또한, 2차 저작권으로 인한 추가 수익 가능성은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2차 저작권 구조



출처: 내가 만든 쿠키

| 기대 효과



출처: 내가 만든 쿠키

| 본론: 수익 모델

-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을 산정할 때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수수료를 참고함.
- 산정 IP 가치와 옥션 판매 대금과의 차이: 파트너십의 경우 계약에 따라 수익 작가/플랫폼과 분배.
- 해당 웹툰의 수익 분배 시 수수료 : 웹툰 수익 발생 시 IP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때 일정 수수료 수취.
- 거래 시장 토큰 거래 수수료 : 거래 시장 내 개인들이 토큰을 거래할 때 일정 수수료 수취.
- 2차 저작권 및 판권 수수료 : 2차 저작권 및 판권 판매 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일정 수수료 수취.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수익 모델

종류	내용
근거법령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투자대상	중소 산업용 부동산
공모단가	주당 5천원
배당수익률	역삼 런던빌 사례: 연환산 배당수익률5%
매입 보수	(공모수수료) 자산가액의 1%
운용 보수	임대수익 배당수수료의 2%
매각 보수	매각 차익의 7%
거래 수수료	0.4%

출처: 카사, 내가만든쿠키

| 쿠키카우 수익 모델




종류	내용
옥션 판매 대금	산정가치 이상은 수익
수익 분배 수수료	IP 수익 정산 시 수수료 (IP 수익 배당 수수료의 2%)
토큰거래 수수료	토큰을 투자자간 거래 시 일정 비율 수수료 (거래 수수료율 0.4%)
2차 저작권 및 판권 수수료	2차 저작권 및 판권료 분배 시 수수료 (발생 수익의 7%)

출처: 내가만든쿠키

본론: 상용화 전 필수요건

- 쿠키카우의 상용화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함.
- 웹툰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유명 작가의 작품 IP가 필수적이므로 **IP 확보 방안 필요함**.
- 기존 웹툰 시장은 카카오, 네이버 두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띄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함**.
- 토큰 증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투자자들의 이해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쿠키카우가 마주하는 문제

문제	해결방안
유명한 작품의 경우 값비싼 IP의 가격과 IP 소유자의 판매 의지 없음으로 인해 IP 확보 불가	합리적인 가격 측정과 토큰 증권화로 인한 IP 원소유자의 추가적인 이득 강조 
기존 웹툰 시장의 수익 독점 구조	플랫폼 측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강조, 플랫폼의 참여 유도. 기존의 수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임을 강조 
토큰 증권에 대한 불확실성 및 상품 이해 부족	쿠키카우의 수익 구조와 분배 과정의 투명성 추구 및 구체화된 투자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 및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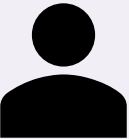
출처: 내가만든쿠키

출처: 내가만든쿠키

| 본론: 시장참여자들에게 쿠키카우가 가지는 의미

- 투자자에게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웹툰 IP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
- 작가와 플랫폼에게는 토큰증권으로 인한 수입과 함께 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작에 대한 관심 증대, 새로운 수입원 제공.
- 영화제작사들은 기존의 불확실한 웹툰 원작 IP의 영상화에서 벗어나 쿠키카우를 통해 검증된 작품 IP를 영상화 가능.
- 증권사와의 협업을 통해 증권사는 토큰 증권에 대한 시장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토큰증권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음.


| 투자자



내가 좋아하는 웹툰 작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출처: 내가만든쿠키


| 웹툰 작가 및 플랫폼



웹툰 IP가 추가적으로 활용되어 추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출처: 내가만든쿠키

| 영화제작사



흥행성이 담보된 작품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출처: 내가만든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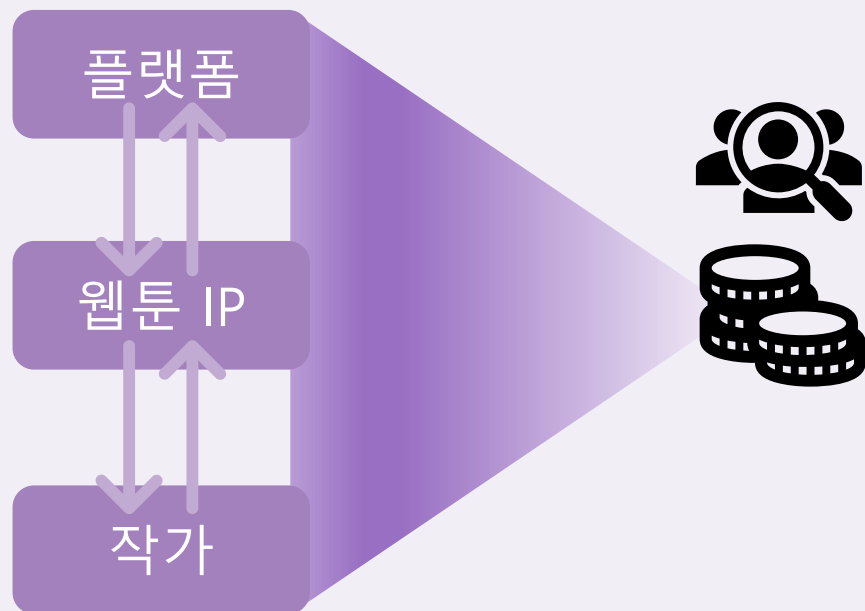
CONTENTS

- 서론
- 본론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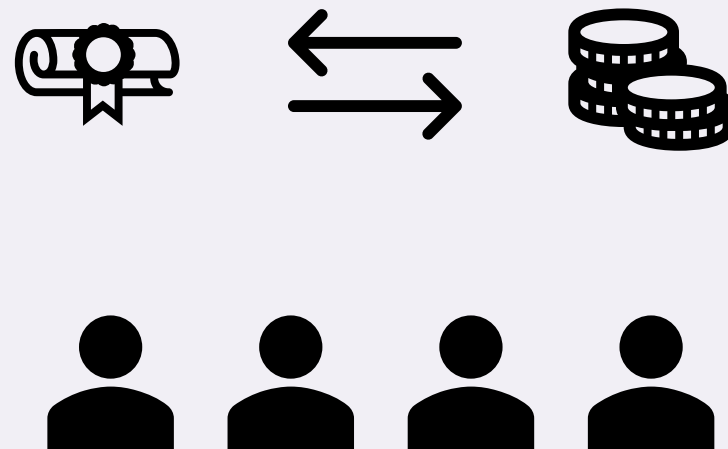
결론: 사회·경제적으로 창출되는 가치

- 첫째, **유동성 및 투자 기회가 증가가 기대됨**. 웹툰 IP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웹툰 작가와 플랫폼을 위한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는 **웹툰 IP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조달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 둘째, 웹툰 작가와 플랫폼이 웹툰 IP의 유통과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독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도움. 블록체인과 토큰화 과정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에 참여 및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

유동성 및 투자 기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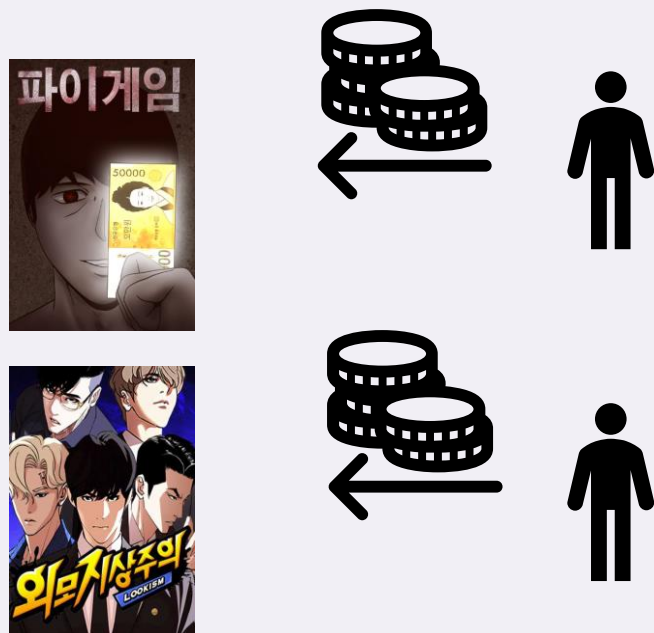
신규 독자층의 유입 및 색다른 시장 참여 방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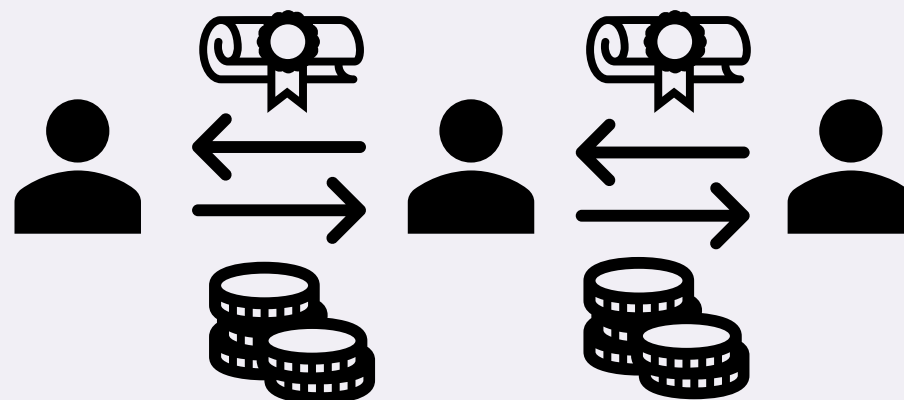
결론: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 셋째, 위험을 분산시켜 줌. STO 기반 투자 모델은 웹툰 IP에 대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됨. 자산에 대한 보다 유동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자재적으로 특정 웹툰 IP 또는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 넷째, STO 기반 투자 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됨으로써 웹툰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모든 거래가 추적 및 기록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투자 과정의 무결성에 신뢰를 갖고, 작가와 플랫폼은 IP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웹툰 IP 투자에 대한 위험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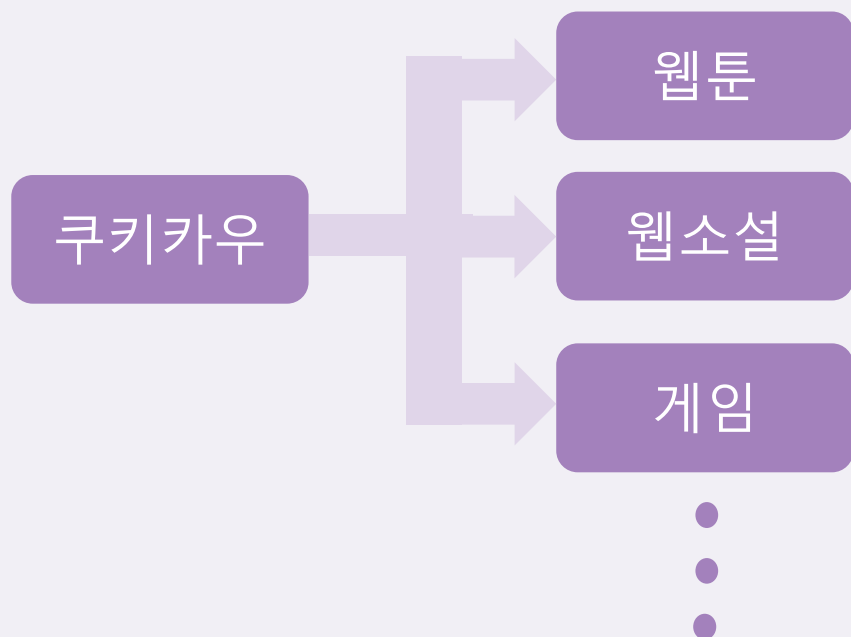
웹툰 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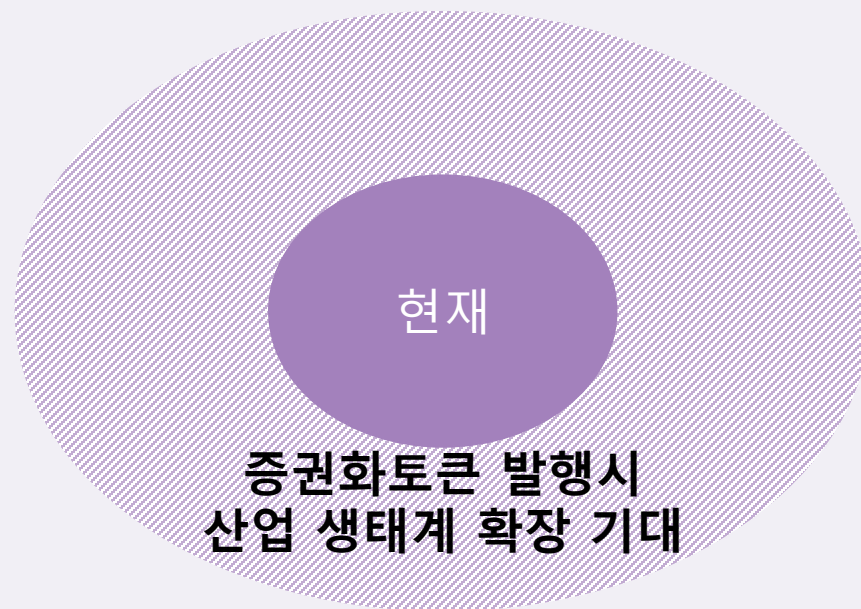
결론: 추가적인 활용방안

- 또한, 이러한 증권화 토큰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은 웹툰에 국한되지 않음.
- 자체 IP를 가지고 있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웹소설 등 웹툰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의 경우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그대로 적용 가능함.
- 본 팀은 이러한 플랫폼 및 증권화 토큰이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반의 생태계 확장 및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쿠키카우의 확장성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확장



- 본 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TO 시장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자산유동화의 방안을 제시함
- STO에 대한 정부의 제도화와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영화화/드라마화 웹툰의 가치를 토큰증권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급속도로 성장 중인 웹툰 산업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 촉진
-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웹툰 산업 뿐 아니라 더욱 나아가 웹소설과 같은 미디어 플랫폼에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THANK YOU.

내가 만든 쿠키

추상훈
이충은